

삼성 상생의 닻을 올려라

삼성전자-중기중앙회 스마트 공장 구축 맞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中企와 함께 신속히”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보고회

유망 중소기업 발굴, 멘토 투입
기술개발·글로벌 경쟁력 확보
키오프 행사에 플라맥스·엠텍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가 중
소기업들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더욱 앞당긴다.

중기중앙회는 삼성전자와 함께 24
일 오후 충북 음성에 있는 플라맥스(주)

와 (주)엠텍에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
축 지원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고 밝혔다.

이날 키오프 행사를 연 플라맥스와
엠텍은 문구류 및 문구류 부품을 생산
하는 기업으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해 문구류 국산화 및 제조 생산성 향상
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스마
트공장 지원사업'에 신청, 각각 2·3호
로 선정된 기업이다.

관련 지원사업은 소재·부품·장비 분
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연계해 구축비 지
원 및 삼성전자 전문 멘토를 투입함으
로써 기술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이 제
고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와 삼성전
자가 지원하고 있다.

플라맥스는 100% 일본에서 수입하
다 80% 이상 국산화에 성공한 문구류
펜촉 생산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입출연마 설비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량분석·개선방
법 등 품질개선기법을 삼성전자로부
터 전수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설

비가동률 향상, 공정불량률 감소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엠텍은 국내 문구 대표 브랜드인
모나미 필기구 제품을 완제품으로 생
산, 국내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늘어나는 문구류의
수요에 맞춰 빠른 생산과 납기 준수를
위해 포장자동화시스템 및 조립부품
의 정렬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성 향상 및 납기 단축을 꾀할 예정이
다.

중기중앙회 정우조 혁신성장본부

장은 “이번 행사는 일본 수출규제 관
련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필기구
부품과 완제품을 국산화하는 중소기
업들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
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
재·부품·장비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
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신속하게 지원
하도록 노력할 예정인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아시아투데이

2019년 09월 25일 수요일 019면 산업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삼성이 노하우 전수

중기중앙회 상생 스마트공장 구축
'소·부·장' 업체 품질개선 등 지원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는 24일
충북 음성에 소재한 플라맥스와 엠텍
에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키오프 행사를(착수 보고회)를 가
졌다.

키오프 행사를 진행한 플라맥스와
엠텍은 문구류·문구류 부품을 생산
하는 기업으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해 문구류 국산화·제조 생산성 향상
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스마
트공장 지원사업'에 신청해 각각 2호
와 3호로 선정된 기업이다. 1호는
SBB테크·하모닉 감속기(고정밀 로봇
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핵심 부품) 국
산화 기업이다.

플라맥스는 100% 일본에서 수입하
다 80% 이상 국산화에 성공한 문구류

펜촉(Nibs) 제품에 대해 상생형 스마
트공장 사업을 통해 압출·연마·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량분
석·개선방법 등 품질개선기법을 삼성
전자로부터 전수받을 예정이다.

엠텍은 모나미 필기구 제품을 완제
품으로 생산해 국내에 공급하는 기업
으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늘어나는
문구류의 수요에 맞춰 빠른 생산과
납기 준수를 위해 포장자동화시스템·
조립부품의 정렬자동화시스템을 도
입, 생산성 향상과 납기 단축을 꾀할
예정이다.

정우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은 “향후에도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노력할 예정
인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news1@